

KDC 제5판 건축학 분야 전개의 개선방안

Improvements and Modifications of the Subject, Architecture Engineering, in the 5th Edition of the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여 지 속 (Ji-Suk Yeo)*

공 성 훈 (Song-Hoon Kong)**

오 동 근 (Dong-Geun Oh)***

목 차

- | | |
|--------------------------------|--------------------------------|
| 1. 서론 | 3.1 KDC 제5판 건축공학 및 건축술 전개의 문제점 |
| 2. 건축학의 주요영역과 주요 분류표상의 전개 | 3.2 KDC 제5판 건축공학 및 건축술의 개선 방안 |
| 2.1 주요영역 및 연구분야 | |
| 2.2 KDC와 주요 분류표의 전개 비교 | |
| 3. KDC 건축학 분야 분류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 결론 |

초 록

이 연구는 KDC, DDC, NDC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분류표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의 비교를 바탕으로 KDC 제5판에서 540과 610에 양분되어 있는 건축공학과 건축술을 통합하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분류 연구자와 건축학 연구자의 공동연구를 통해, 610에 있던 건축술을 540에 통합하고, 540의 표목을 '건축공학'에서 '건축학'으로 변경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추가로 540.1 건축계획 및 관련세목, 543.1 구조역학, 546.1 건축환경 및 관련세목의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an improvement and modification plan for KDC's architecture field after comparing and analyzing KDC, DDC, NDC, the Research Field Classification System, and the National S&T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This study suggests, through the cooperative study of researchers from classification and those from construction, that it would be better to integrate 610 architecture into 540 architecture engineering and to change the heading of 540 from "Architecture engineering" to "Architecture". The study also newly creates several subdivisions, 540.1 Architecture Plan including its subdivisions, 543.1 Structural Mechanics, and 546.1 Architectural Environment including its subdivisions.

키워드: 한국십진분류법, 건축학, 건축공학, 건축술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KDC, Architecture, Architecture Engineering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wuhaha@chol.com) (제1저자)

** 계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ksh@kmu.ac.kr)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odroot@km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13년 4월 25일 최초심사일자: 2013년 5월 7일 게재확정일자: 2013년 5월 21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2): 359-376, 2013.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2.359]

1. 서론

건축은 인간의 의식주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우리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연유로 건축은 인류역사의 생생한 기록물임과 동시에 다른 어떤 것보다 영속성이 있는 것으로, 특히 주거건축은 인간생활의 시대적 또는 지역의 특수한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인류생활사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건축개론편찬회 1991, 14). 건축이 가지는 영속성과 인류사의 측면은 건축을 공학적인 측면과 인문·예술적인 측면을 함께 다루는 학문으로 발전시켰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건축은 예술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종합적 학문영역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건축의 특징은 현재 건축학에 그대로 반영되어 건축학은 공학적인 측면과 예술적인 측면을 모두 다루고 있는 학문분야로 발전하였다.

건축공학은 이러한 분야를 공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분야이며, 건축술은 종합예술적인 측면에서 연구하는 분야이다. KDC에서 건축학은 500 기술공학의 하위주제인 540 건축공학과 600 예술의 하위주제인 610 건축술로 양분되어 있다. 이것은 DDC가 600 Technology의 하위주제인 690 Construction of buildings와 700 The Arts의 하위주제인 720 Architecture로 양분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건축은 앞서 언급한 대로 공학 및 종합 예술적인 측면을 모두 다루고 있으며, 건축학 관련정보 이용자들은 이 두 분야를 모두 이용하고 있다. KDC가 가지는 학문적 분류의 특성이 이렇게 동일한 주제를 학문에 따라 나누는 경우가 건축학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건축공학과 건축술은 서로 다른 학문분야에 관심을 가진 서로 다른 이용자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학이라는 동일분야의 이용자가 두 분야로 나뉜 정보를 별도로 이동하면서 이용해야 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학과 예술 두 분야로의 양분된 정보자료의 분류는 건축학 분야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문헌분류 연구자와 건축학 연구자의 공동연구(주제전문가의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동근, 배영환, 여지숙 2011, 221과 Oh 2012, 79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를 통해, KDC 제5판의 건축공학과 건축술을 통합하여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건축학의 학문구조에 대해 분석하고, 이와 더불어 KDC가 참조한 문헌분류표를 함께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제5판의 체제에서 건축공학과 건축술을 통합한 복수의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이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안을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KDC에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인 관점과 실제적인 관점을 모두 고려한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건축학의 주요영역과 주요 분류표상의 전개

2.1 주요영역 및 연구분야

건축의 어원은 라틴어 Architectura, 즉 크고 위대한(Archi) + 기술(tectura)이다. 어원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건축은 예술과 기술이 통합된 영역이다. 건축의 목적은 인간에게 바람직한 환경조건을 제공하는 것으로도 정의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인간 생활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기 위한 예술적 의미의 공간형태를 구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체득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건축을 이루는 요소는, 대체로 다음의 3가지로 볼 수 있다(두산백과 2013).

- 안전하고 튼튼한 구조기술(구조)
- 편리함과 다기능을 가진 공간(기능)
- 예술적 감동을 주는 공간형태(미)

이와 같은 3가지 요소가 각각 개별로 존재한다면 건축이라는 말 자체가 공간예술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을 것이다. 상기의 3요소는 서로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종합적인 관계인 것이다. 설계작업 자체도 역시 건축의 3요소를 종합적으로 결합시키는 작업이다. 그러므로 건축을 아름다운 것만으로, 기능적인 것만으로, 또는 구조적인 것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이 요소들의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공학은 공업생산기술을 순수과학 학문분야의 방법과정에 따라 개발하고 실천하는 응용과학으로서 대부분 접근한다. 그러나 건축은 예술과 기술의 종합이고,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의 종합이다. 대지와 건물과 인간행태와의 관계를 연구하고, 기능, 구조, 미를 조화하고 종합하는 학문으로서 공학과는 또 다른 영역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건축은 분석하는 학문 영역뿐만 아니라 종합하는 영역도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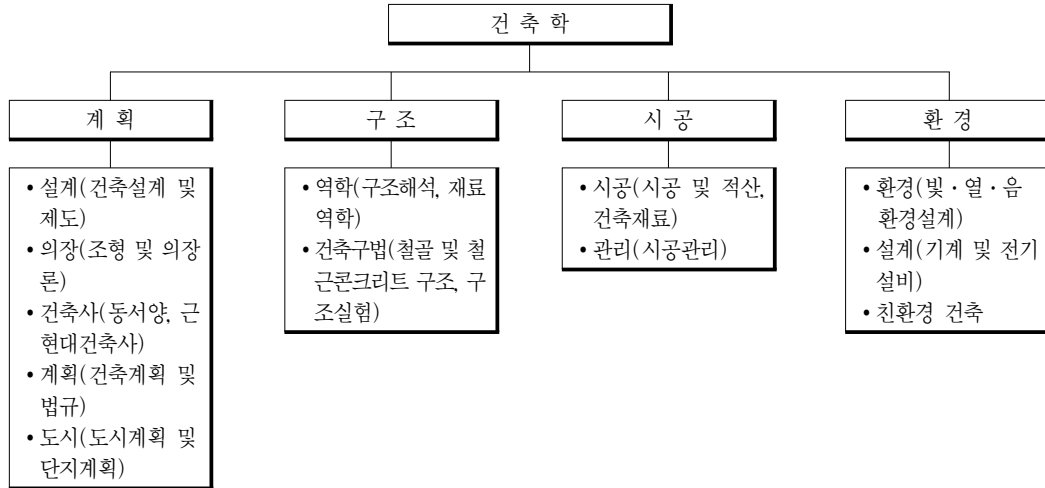
건축에서 다루지는 과정은 크게 4분야, 즉 계

획, 구조, 시공, 환경 분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분야는 추가로 세분화된 많은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다(〈그림 1〉 참조)(한국공학교육인증원 2013; 대한건축사협회 1999a, 90-95; 대한건축사협회 1999b, 58-69를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음). 계획분야는 계획, 설계, 의장, 건축사, 도시계획과 관련되며, 구조분야는 역학과 건축구법에 관한 것으로 구분된다. 시공분야는 CM(Construction Management)과 시공 및 적산, 재료, 환경 분야는 설비와 환경공학으로 세분된다.

각 분야를 상세히 살펴보면, 먼저 계획분야는 건축설계의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기술적, 전문적 설계자료를 과학적, 논리적, 체계적으로 만드는 이론적 방법이다. 구성요소는 건축설계 진행방법, 건축프로그램밍 방법, 건축계획 결정방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건축구조는 크게 구조해석과 구조설계로 나눌 수 있다. 구조해석은 건축물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를 알아내는 과정이며, 구조설계는 해석에서 구해낸 힘을 바탕으로 건축물의 디자인에서 철근과 부재의 소요량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시공은 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계획은 실패와 클레임을 감소시키므로, 공사실험에는 치밀한 공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건축은 인간의 쾌적함에 미치는 자연 기후적 영향을 조절하는 여과기라고 할 수 있다. 건축 역사에서 건축의 환경조절은 물리적 차폐물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해왔다. 물리적 차폐물은 건물의 외피구조의 발달을 가져왔고, 이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자연형 조절방법으로서 건축적 수법이라고 한다. 이는 자연환경, 즉 기후에 따라 특이한 건축양식을 갖는 지역주의건축을 낳았는데, 이처럼 건축디



〈그림 1〉 건축의 주요전공 영역별 분류

자인 초기단계부터 자연형 조절방법을 다루는 학문이 건축환경공학이다. 반면에, 건축적 수법, 즉 자연형 조절방법으로 인간의 쾌적함의 요구 조건에 미달될 때, 기계적인 설비형 조절방법으로 쾌적한 환경을 창출할 수 있는데, 이를 다루는 학문이 건축설비공학이다.

2.2 KDC와 주요 분류표의 전개 비교

이 절에서는 KDC와 DDC, NDC, 그리고 학문분야분류표에서 건축공학의 전개를 비교, 추후 논의할 개선안의 도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2.1 KDC와 DDC, NDC의 건축학 분야 전개 비교

KDC와 다른 문헌분류표와의 비교는 선행연구(김연례 2009; 윤춘섭 1999)에서 이미 상세히 분석된 바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KDC와 DDC, NDC에서 건축공학의 전개에 대해 건축학의 학문분야와 비교하여 간단히 분석해 보

기로 한다. KDC에서 건축공학은 540 기술과학 아래에 전개되어 있다. KDC에서 건축공학의 전개는 크게 재료(541), 실무(542), 구조(543-545), 설비(546), 난방·환기(547), 마감(548), 각종 건물(549)의 순서로 전개되어 있다. 이러한 전개순서는 699를 제외한 모든 요목의 순서가 〈표 1〉에서 제시된 DDC에서 건축공학의 전개와 매우 유사하다. 세목의 전개 역시 KDC와 DDC는 거의 동일하게 전개하고 있다. KDC와 DDC는 건축공학을 공학에, 건축술을 예술에 전개한 것 역시 동일하다.

그러나 NDC는 건축공학의 전개에서 이 두 분류표와는 다르게 전개하고 있다. NDC는 건축공학과 건축술에 관련된 주제들을 모두 기술공학의 하위주제인 520 건축학에 전개하고 있으며, 이들의 세목의 전개 역시 KDC와 DDC와는 다르게 건축사(521-523), 건축구조(524), 건축설계 및 시공(525), 각종건축(526-527), 건축설비(528), 건축의장(529)의 순서로 전개하고 있다. KDC와 DDC, NDC의 건축공학의 전개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KDC 및 DDC, NDC의 경우 건축공학 및 건축학의 하위구분의 전개순서는 서로 다르지만, 건축학의 학문분야에 따른 전개를 하고 있으며, 특히 KDC는 DDC와 매우 유사한 전개를 하고 있다.

건축학의 또 다른 분야인 건축술을 KDC는 예술의 강목인 610에, DDC는 720 Architecture에 전개하고 있다. NDC는 520 건축학 아래 526

각종 건축, 527 주택건축, 529 건축의장 및 장식을 전개하여 3개의 요목에 전개하고 있다. KDC와 DDC, NDC의 건축술 관련주제를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KDC와 DDC, NDC는 건축술을 크게 건축사, 각종건물, 건축의장 및 장식의 3분야로 나누어 동일한 순서로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DDC와 NDC는 3개의 요목에 건축사를 배정한 반면,

<표 1> 건축공학의 KDC, DDC, NDC의 비교

KDC		DDC		NDC	
540	건축공학	690	Construction of Buildings	520	建築學
541	건축재료	691	Building materials	521	日本の建築
542	건축실무	692	Auxiliary construction practices	522	東洋の建築・アジアの建築
543	건축구조의 유형	693	Construction in specific types of materials and for specific purposes	523	西洋の建築
544	친환경건축	694	Wood construction Carpentry	524	建築構造
545	건물 세부구조	695	Roof covering	525	建築計畫・施工
546	건축설비, 배관 및 파이프의 부설	696	Utilities	526	各種の建築
547	난방, 환기 및 공기조절공학	697	Heating, ventilating, air-conditioning engineering	527	住宅建築
548	건축상의 세부 완성작업	698	Detail finishing	528	建築設備・設備工學
549	각종 건물	699	Unassigned	529	建築意匠・裝飾

<표 2> 건축술의 KDC, DDC, NDC의 비교

KDC		DDC		NDC	
610	건축술	720	Architecture	521	日本の建築
619	건축사				
611	궁전, 성곽	721	Architectural materials and structural elements	522	東洋の建築
612	종교건물	722	Architecture from earliest times to ca.300	523	西洋の建築
613	공공건물	723	Architecture from ca. 300 to 1399		
614	과학 및 연구용건물	724	Architecture from 1400		
615	공업용건물	725	Public structure		
616	상업, 교통, 통신용건물	726	Buildings for religions and related purposes	526	各種の建築
617	주거용건물	727	Buildings for educational and research purposes	527	住宅建築
618	기타건물	728	Residential and related buildings		
619	장식 및 의장	729	Design and decoration of structures and accessories	529	建築意匠・裝飾

KDC는 하나의 세목에 전개하고 있다. 또한 각종 건물을 KDC는 8개의 요목에 전개한 반면, DDC는 3개, NDC는 2개의 요목에 전개하고 있다. 장식 및 의장에 대해서는 세 분류표 모두 하나의 목을 배정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KDC는 DDC와 NDC에 비해 각종 건물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건축학에서 건축사는 건축학에서도 장서가 많은 편에 속하며, 건축학을 전개시키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분야에 속한다. 따라서 KDC에서는 건축사의 전개와 관련된 항목의 전개에 좀 더 비중 있게 다룰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2 KDC와 연구분야분류표의 비교

문헌분류는 학문 및 연구활동의 결과로 생산된 정보자료를 그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문헌분류는 이러한 정보자료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위한 정보자료의 분류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에는 KDC의 건축공학의 전개와 국내 연구분야분류표에서 건축공학의 전개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국내의 연구분야 분류표로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분류표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가 있다. 학술연구분야분류표는 학술연구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학술연구지원의 관리 통계, 대학의 연구활동 실태 등의 조사, 연구과제의 접수와 심사 및 평가자의 선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한국연구재단 2013a).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는 국가과학기술의 기획·평가·관리의 기본체제로 활용하고, 과학기술예측조사, 국가기술지도, 기술수준평가, 과학기술 연구활동조사, 과학기술지식·정보관리와 유통에의 활용 등의 분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분류표이다(한국연구재단 2013b). 이 두 분류표는 학문분야와 과학기술분야에 학술활동 및 관리 등에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분류표이다. 이 두 연구분야분류표와 KDC를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학술연구분야분류표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건축공학분야를 살펴보면, 학술연구분야분류표는 건축공학을 단독으로 배정하여 구분한 반면,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경우 E 건설/교통 아래 E103 시설물설계/해서기술, E104 건설시공/재료로 나누어 전개하고 있다. 이 중 E103에는 설계와 관련된 항목만 있으며, 특히 E104 건설시공/재료가 건축공학과 관련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KDC는 크게 건축재료, 건축실무, 건축구조, 친환경건축, 건축세부구조, 건축마감, 각종 건물로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개는 학술연구분야분류표도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학술연구분야분류표의 경우 시공과 관련된 주제들로 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는 각종 시공기술(E10401-E10405, E10410), 건설재료(E10406-E10408), 생애주기 가치평가(E10409), 건설안전(E10411)의 항목들로 건설시공/재료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전개는 KDC보다는 시공과 관련된 부분에 중점을 둔 전개를 하고 있으며, 특히 E104 건설시공/재료 아래에 이와 관련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건축공학 전반을 다루고 있는 KDC와는 다른 전개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KDC에서 건축공학과 건축술을 통합하여 이용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3〉 KDC와 건축공학의 주요 연구분야분류표 비교

KDC		학술연구분야분류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540	건축공학	D15000	건축공학		E104	건설시공/재료
541	건축재료	D150100- D150103	건축공학일반	건축이론	E10401	토목시공기술
				건축사		
				건축법규		
542	건축실무	D150200	건축계획/설계		E10402	건축시공기술
543	건축구조의 유형	D150300- D150311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E10403	플랜트시공기술
				철골구조		
				건축기초구조		
				셈 및 공간구조		
				구조표준화		
				내진, 내풍구조		
				비파괴진단		
				목구조		
				조적구조		
				복합구조		
구조역학/해석						
544	친환경건축	D150400- D150407	건축설비/환경	건축에너지	E10404	건설시공 관리기술
				건축조명		
				공기조화		
				전기설비		
				건축음향		
				지중건축		
생태건축						
545	건물 세부구조	D150500- D150503	건축시공	시공기술	E10405	시공 자동화기술
				시공재료		
				시공관리		
546	건축설비, 배관 및 파이프의 부설	D150600- D150605	건축의장	건축심리	E10406	건설구조재료
				공간론		
				건축색채		
				빛/경관		
				단지/도시		
547	난방, 환기 및 공기조절공학	D150700	건축문화재		E10407	건설마감재료
548	건축상의 세부 완성작업	D159900	기타건축공학		E10408	친환경/재생건설재료
549	각종 건물				E10409	생애주기가치평가
					E10410	극한시공기술
					E10411	건설안전 관리기술

3. KDC 건축학 분야 분류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KDC 제5판 건축학 분야에 대한 개선안을 두 가지 관점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표준분류표로서 많은 수의 도서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KDC에 대한 개선안을 학문구조를 참조로 하여 가장 이상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안과 실제 KDC를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을 고려한 안을 하나의 안으로 통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먼저 이 장에서는 KDC 제5판의 건축공학 및 건축술의 문제점을 분석한 뒤, 건축학의 학문구조를 참조로 한 KDC 제5판 건축학의 이상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3.1 KDC 제5판 건축공학 및 건축술 전개의 문제점

3.1.1 건축공학 및 건축술의 분리

앞서 언급한 대로 KDC 제5판에서는 건축공학과 건축술을 기술과학과 예술로 분리하여 전개하고 있다. 이는 DDC와 매우 유사한 전개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KDC가 DDC를 참조하여 만든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건축술과 건축공학은 건축학의 하위분야로, 건축학 분야 이용자들은 이 두 분야 모두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KDC를 사용하는 도서관은 자연스럽게 분류표 상에서 주제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자료의 배치 역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는 이 두 분야를 동시에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한 곳에 모여 있는 경우보다는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3.1.2 건축사 관련 주제 전개의 미흡

KDC에서는 건축사를 610 건축술 아래 610.9에 아시아(동양) 건축사(610.91), 서양건축사(610.92)로 나누어 전개하고 있다. 앞서 DDC 및 NDC와의 비교에서 살펴본 결과, KDC는 건축사에 대한 전개를 이 두 분류표보다 더 비중이 낮게 전개하고 있으며, 도서관에서 건축사 관련장서의 수 등의 면에서도 세목에 모두 전개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표 4>는 국가서지에서 건축공학 및 건축술 장서량을 나타낸 것으로, 건축사의 경우 건축술에서 세목에 전개되어 있으나, 619 장식 및 의장을 제외한 다른 요목들보다도 더 많은 양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건축사는 건축학에서 건축계획의 분야에 설계, 의장, 계획 등과 함께 속하는 분야로, 그 비중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와 동일하게, 그리고 장서량에서 본다면 이보다 더 비중 있게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1.3 건축공학 관련주제의 전개 부족

앞서 살펴본 KDC와 학술연구분야분류표의 비교(<표 3> 참조)에서 지중건축, 생태건축, 공간론, 건축심리, 건축색채와 관련된 주제가 KDC에는 전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축심리, 공간론, 건축색채, 빛/경관, 단지/도시로 세분하고 있다. 특히 도시공학에서 다루는 빛/경관, 단지/도시 이외에, 건축심리, 공간론, 건축색채 등의 주제에 대한 전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건축행위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창조된 공간을 이용하는 재실자가 공간을 인지하는 건축

〈표 4〉 건축공학 및 건축술의 자료량*

분류 기호	분류항목	자료량	일반 도서	학위 논문	정부 간행물	아동 도서	비도서 자료	연속 간행물	기타**
540	건축공학	4,206	1,727	2,054	199	18	42	139	27
541	건축재료	1,878	183	1,547	98	4	5	38	3
542	건축실무	6,323	2,516	3,435	234	2	91	21	24
543	건축구조의 유형	4,274	737	3,379	129	3	13	9	4
544	친환경건축	158	51	91	11	1	0	0	4
545	건물 세부구조	591	66	478	39	0	2	6	0
546	건축설비, 배관 및 파이프의 부설	576	422	126	13	0	7	5	3
547	난방, 환기 및 공기조화공학	2,000	426	1,350	185	1	21	12	5
548	건축마감	108	62	37	3	0	4	1	1
549	각종 건물	4,058	271	3,514	259	4	2	8	0
610	건축술	4,769	2,006	2,496	132	30	51	45	9
.9	건축사	2,858	1,101	1,582	118	5	41	4	7
611	궁전, 성곽	454	168	105	131	26	21	2	1
612	종교건물	790	210	425	127	3	23	2	0
613	공공건물	1,636	189	1,322	89	0	27	8	1
614	과학 및 연구용건물	47	7	37	3	0	0	0	0
615	공업용건물	33	6	26	1	0	0	0	0
616	상업, 교통, 통신용건물	803	111	649	34	1	5	2	1
617	주거용 건물	2,602	758	1,693	93	6	35	17	0
618	기타 건물	530	102	402	20	0	3	2	1
619	장식 및 의장	3,279	1,076	2,114	15	2	22	41	9

* 대한민국 국가서지 2011 검색결과(검색범위: ~2011년까지)

** 교과서, 학습참고서, 한장본, 조선총독부자료, 접자도서, 국외발행 한국관련자료

심리가 최종적인 공간평가의 주요요소 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공간 인식 및 평가과정에서 건축색채 등의 마감효과는 실제적으로 공간을 인식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KDC 제5판 건축공학 및 건축술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이 두 분야를 통합할 수 있는 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3.2 KDC 제5판 건축공학 및 건축술의 개선방안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선안은 건축학의 학문구조에 따른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현재 KDC의 540 건축공학에 610 건축술을 통합하는 것을 기본구조로 한다. 이는 건축학이 종합예술의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건축학의 학문이 대체로 공학관련 학문분야로 분류되며 이것은 앞서 살펴본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분류표

에서도 동일하였기 때문이다.

3.2.1 건축학의 학문구조에 따른 개선안

먼저 건축학의 학문구조에 따른 개선안은 KDC의 주제분류적 성격(Oh 2012)을 반영하여, 540에 건축술 관련 주제를 통합한 후, 요목전개를 재조정하고 건축술 관련주제를 540의 체제 아래로 삽입할 수 있는 안이다. 이 안은 건축학의 체제를 따른 안으로 요목까지 제안하여 건축학의 학문구조를 반영한 분류체제를 제시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요목 이하 세목들은 KDC 제5판의 체제를 고려한 안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이러한 안은 먼저 540의 표목을 건축공학과 건축술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건축공학'에서 '건축학'으로 변경하였다. 건축학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공학적인 측면과 예술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두 분야를 통합할 경우 현재 KDC에서 540과 610 중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이 다른 분류체계를 유지하면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며, 이 연구에서는 기술과학의 하위주제인 540에 통합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표 4>의 학술연구분야분류표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서 공학 또는 기술과학의 하위분야에 건축학을 전개하고 있는 것과, <그림 1>에서 살펴본 건축학의 주요영역에서 살펴보다더라도 건축학의 주요 하위부분인 계획, 구조, 시공, 환경의 네 분야 중 구조, 시공, 환경의 3분야가 공학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건축공학 및 건축술의 주요 이용자인 건축관련 전문가를 배출하는 건축학과 또한 학과분류에서 공학계열(대분류) 건설(중분류)의 건축학, 건축공학(소분류)에 포함(강성국 2009, 163)되어 있다.

그리고 이 안은 건축학의 학문분야와 실제 건축과정을 고려한 것으로 건축계획에 속하는 건축사 및 계획, 각종 건물을 541과 542에 먼저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시공 및 적산을 544에 전개하였고, 구조(545), 설비(546), 마감(547)의 순으로 건축공학 관련주제들을 전개하였다.

<표 5> 건축학의 학문구조에 따른 KDC 제5판 건축공학 및 건축술 개선안

KDC 제5판				개선안	
540	건축공학	610	건축술	540	건축학
		.9	건축사		
541	건축재료	611	궁전, 성곽	541	건축사
542	건축실무	612	종교건물	542	건축계획 및 각종건물
543	건축구조의 유형	613	공공건물	543	건축재료
544	친환경건축	614	과학 및 연구용건물	544	건축시공 및 적산
545	건물 세부구조	615	공업용건물	545	건축구조
546	건축설비, 배관 및 파이프의 부설	616	상업, 교통, 통신용 건물	546	건축설비
547	난방, 환기 및 공기조화공학	617	주거용 건물	547	건축마감
548	건축마감	618	기타 건물	548	건축마감 및 인테리어
549	각종건물	619	장식 및 의장	549	친환경건축

이후 건축술에 해당하는 의장 및 인테리어를 548에 전개하였으며, 현재와 미래에서의 환경오염이 가속화됨으로써 대체에너지 이용방안을 포함하여 친환경건축을 마지막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 안을 실제 KDC에 적용하기에는 기존에 KDC를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에게 재분류의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KDC를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을 고려한 안을 다음 절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3.2.2 KDC 제5판의 체제를 고려한 개선안

이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개선안을 KDC를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을 고려한 실제적인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존의 KDC 건축학 분야가 가지고 있는 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건축공학과 건축술을 통합하는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요목까지 전개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5>에서 제시한 안은 KDC 제5판의 체제를 요목단계까지 그대로 유지하면서 710에 전개

된 건축술의 주제들을 540으로 통합한 것이다. 610.9에 있는 건축사를 540.9에 이치하고, KDC 제5판의 경우 549 아래 세목이 611-619의 기호를 이용한 특수주제구분으로 전개되었으므로 549 각종 건물에 610-618에 있는 항목들을 그대로 이치하였다. 기존 549에 있던 자료와 611-618 사이에 있던 자료들이 통합되므로 자료의 양이 많아지지만, 비교적 장서가 많은 종교건물(제5판 기호 612), 공공건물(제5판 기호 613), 주거용건물(제5판 기호 617)(<표 4> 참조)은 특수주제구분을 적용하거나 세목이 다수 전개되어 있어 건축공학과 건축술로 분리되어 있던 각종 건물을 한 곳에 통합하기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요목단계에서는 KDC 제5판의 체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축공학과 건축술의 통합이 가능하였으나, 세목단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그림 1>에서 살펴본 건축학의 학문구조에서 건축사 및 설계는 계획단계에 포함되는 분야로,

<표 6> KDC 제5판의 체제를 고려한 건축공학 및 건축술 요목단계 개선안

KDC 제5판				개선안	
540	건축공학	610	건축술	540	건축학
		.9	건축사	.9	건축사
541	건축재료	611	공전, 성곽	541	건축재료
542	건축실무	612	종교건물	542	건축시공 및 적산
543	건축구조의 유형	613	공공건물	543	구조역학 및 건축일반구조
544	친환경건축	614	과학 및 연구용건물	544	친환경건축 및 특정목적에 위한 건축
545	건물 세부구조	615	공업용건물	545	건물 세부구조
546	건축설비, 배관 및 파이프의 부설	616	상업, 교통, 통신용 건물	546	건축설비, 배관 및 파이프의 부설
547	난방, 환기 및 공기조화공학	617	주거용 건물	547	난방, 환기 및 공기조화공학
548	건축마감	618	기타 건물	548	건축마감 및 인테리어
549	각종건물	619	장식 및 의장	549	각종건물

〈표 7〉 KDC 제5판의 체제를 고려한 건축공학 및 건축술 세목단계 개선안

KDC 제5판		개선안	
540	건축공학	540	건축학
		.09	건축사 [전 610.9]
		.091	아시아(동양) 건축사 [전 610.91]
		.0911	동양각국건축사 → 신설 540.911-.919는 지역구분표 11-19와 같이 세분한다. 예: 한국건축사 540.9111
.1	건축구조 일반 → 543	.1	건축계획 → 신설
.2	건축활동 → 542.1	.11	공간론 → 신설
.21	구조물 분석 → 542.12	.12	건축심리 → 신설
.22	안전대책 → 542.96	.13	건축색채 → 신설
.24	유지와 보수 → 542.97	.15	건축설계 [전 542.1]
.26	파손과 파괴 → 543.13	.16	건축제도 [전 542.2]
		.17	설계서 [542.3]
542	건축실무	542	건축시공 및 적산
.1	건축설계 → 540.15	.1	건축활동 [전 540.2]
.2	건축제도 → 540.16	.12	구조물분석 [전 540.21]
.3	설계서 → 540.17	.9	기타 건축실무
		.96	안전대책 [전 540.97]
		.97	유지와 보수 [전 543.13]
543	건축구조의 유형	543	구조역학 및 건축일반구조 [전 540.1]
.1	기초공학(토질) → 543.11	.1	구조역학 → 신설
		.11	기초공학(토질) [전 543.1]
		.12	구조물 분석 [전 540.21]
		.13	파손과 파괴 [전 540.13]
.99	특정목적에 위한 건축 → 544		
.991	도난방지구조 → 544.3		
.992	방화구조 → 544.4		
.993	내화구조 → 544.5		
.9934	소음차단 → 544.54 및 음향학(방음) → 546.13		
.994	해충방지구조 → 544.6		
.995	충격방지구조 → 544.7		
.998	방수, 방습, 빛조절 구조 → 544.8		
.999	기타 특정 목적을 위한 구조 → 544.9		
544	친환경건축	544	친환경건축 및 특정목적에 위한 건축
		.1	친환경건축 [전 544]
		.12	공법 → 주기 보완 태양열, 풍력, Bio-mass, 지중건축, 생태건축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포함한다.
		.3	도난방지구조 [전 543.991]
		.4	방화구조 [전 543.992]
		.5	내화구조 [전 543.993]
		.54	소음차단(방음) [전 543.9934]
		.6	해충방지구조 [전 543.996]
		.7	충격방지구조 [전 543.997]
		.8	방수, 방습, 빛조절 구조 [전 543.998]
		.9	기타 특정 목적을 위한 구조 [전 543.999]

KDC 제5판		개선안	
546	건축설비, 배관 및 파이프의 부설	546	건축환경, 설비, 배관 및 파이프의 부설
.1	급배수설비	.1	건축환경 → 신설
		.11	열환경 → 신설
		.12	빛환경 → 신설
		.13	음환경 → 신설 건축음향 [전 음향학] [전 543.9934]을 포함한다.
.2	가스설비	.2	급배수설비 [전 546.1]
.3	전기설비	.3	가스설비 [전 546.2]
.5	증기(스팀) 파이프, 기구	.4	전기설비 [전546.3]
548	건축마감	548	건축마감 및 인테리어
		.9	장식 및 의장 [전 619]
		.95	건축실내장식 [전 619.5]
		.96	리모델링 [전 619.6]
549	각종건물	549	각종건물 → 통합
610.9	건축사 → 540.9		
611-618	각종 건물 → 549.1-8		
619	장식 및 의장 → 548.9		
.5	건축 실내장식 → 548.95		
.6	리모델링 → 548.96		

이러한 체제에 맞추기 위하여 기존 제5판에서 '건축계획'을 541.1을 신설하고, 542 '건축실무'의 세목으로 전개되어 있던 건축계획 관련 세목들인 542.2 '건축설계', 542.3 '설계서'를 541.1 '건축계획' 아래로 전개하였다. 대신 541.1에 있던 '건축구조 일반'은 543으로 이치한 뒤 표목을 '건축구조의 유형'에서 '구조역학 및 건축일반구조'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건축계획 분야로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분류표에는 전개되어 있으나 KDC에는 전개되지 않은 주제인 공간론, 건축심리, 건축색채의 경우, 학술연구분야분류표에서는 건축의장에 해당하나, 실제 건축학에서는 건축계획단계에서 설계에 앞서 미리 수행되어야 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이 세 주제를 540.1 '건축계획'에서 건축설계보다 앞선 하위주제로 신설하여, 540.11에 '공간론'을 540.12에 '건축심리'를,

540.13에 '건축색채'를 신설하여 추가하였다. 특히 건축색채의 경우 건축의장에 포함시킬 경우 건축물 내부의 색채에만 한정되므로, 건축설계 전에 건축물 내부는 물론 외부에 대한 검토가 미리 선행되어야 하므로 건축계획의 하위주제로 전개하였다.

542에서 건축계획 관련세목들(건축설계, 건축제도, 설계서)이 540.1에 신설된 '건축계획'으로 이치되었으며, 540 아래 분산되어 있던 건축시공 및 실무와 관련된 주제들(건축활동, 구조물분석, 안전대책, 유지와 보수)을 542로 아래로 이치하였다. 이와 함께 542 아래 세목들에는 견적 및 건축비와 관련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어 542의 표목을 '건축실무'에서 '건축시공 및 적산'으로 변경하였다.

신설된 '건축계획'을 540.1에 배정하면서, 기존의 540.1에 있던 '건축일반구조'를 543에 이치

하면서 543의 표목을 '건축구조의 유형'에서 '구조역학 및 건축일반구조'로 변경하였다. 543의 표목을 변경하면서, 543.1에 '구조역학'을 신설하였고, 543.1에 있던 '기초공학(토질)'을 543.11로 이치하였고, 540.21에 있던 '구조물 분석'을 543.12로 이치하여 구조역학에 관련된 주제들을 한 곳으로 집중시켰다. 이 결과 543의 세목은 구조역학 및 그 세목이 543.1에 먼저 전개되고 543.2부터 각 건축구조들이 세목으로 전개되게 되었다.

그리고 친환경건축 역시 특정목적의 건축의 일부로 보아 544의 표목을 '친환경건축 및 특정 목적을 위한 건축'으로 변경하고, 543.99에 있던 '특정목적을 위한 건축'을 544에 통합하였다. 그 결과 544.1에 친환경건축이 전개되고, 544.2-9에 특정목적을 위한 건축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분류표에 전개된 '지중건축'과 '생태건축'은 친환경건축의 분야이므로, '544.1 친환경건축' 아래 세목인 '544.12 공법' 아래의 주기에 포함시켰다.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분류표에서 전개된 주제 중 건축환경과 관련된 '건축음향'은 '546 건축설비, 배관 및 파이프의 부설'의 아래 546.13 '음환경'으로 신설하여 전개하였다. KDC 제5판에서 건축음향은 '543.99 특정목적을 위한 건축'의 하위주제인 '544.993 내화구조' 중 '544.9934 소음차단 및 음향학(방음)'에 전개되어 있다. 그러나 544.9934의 음향학은 소음차단을 위한 건축에 국한된 것으로, 건축음향을 포괄적으로 다루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는 판단에서, 이 연구에서는 546.13에 음환경을 신설하고 주기로 건축음향을 포함시켰다. 건축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환경분야(열환경, 빛환경, 음환경)를 추가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건축환경의 다른 두 분야인 '열환경'과 '빛환경'을 추가로 세분하여 546.11에 '열환경'을, 546.12에 '빛환경'을 함께 신설하여 전개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에 있던 건축설비 관련 세목들이 이치되었다.

또한 619에 있던 '장식 및 의장'은 548 '건축 마감'에 통합되어 548.9에 전개하였다. 이것은 건축과정상 마감후에 인테리어와 관련된 장식 및 의장이 이루어지는 것에 따른 것이다. 건축사와 관련된 부분은 540.9로 이치하여 전개하였으며, 그 아래에 세목으로 540.91에 이치된 '아시아(동양)건축사' 아래 세목으로 '540.911 동양각국건축사'를 신설하여 지역구분표를 부가할 수 있는 합성주기를 통하여 동양각국의 건축사를 국가별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결 론

KDC가 고안 당시부터 가장 많이 참조한 DDC의 학문분류의 특성은 KDC의 특성이 되었는데, 이러한 학문분류의 특성은 특정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이용자에게는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KDC 제5판에서 건축공학과 건축술은 각각 500 기술공학과 600 예술의 강목인 540과 610에 따로 전개되어 있어, 건축학의 경우 이러한 학문분류의 특성이 건축학 분야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건축학이 가지는 예술과 기술의 통합적인 측면으로 인해 생긴 결과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그러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610에 전개된 건축술을 540에 분산하여 통합하는 안을 건축학의 체제를 고려한 안과 KDC 제5판의 체제를 고려한 안의 두 가지로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공학과 건축술을 540에 통합하여 관련 분류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세목의 조정만으로 두 주제를 포용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 제안은 먼저 540의 표목을 '건축공학'에서 '건축학'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540.1에 '건축계획'을 신설하고 그 아래 세목으로 건축계획과 관련된 주제들을 신설(540.11 공간론, 540.12 건축심리, 540.13 건축색채)하고, 분류표에서 '건축실무' 있는 건축계획과 관련된 주제들(540.15 건축설계, 540.16 건축제도, 540.17 설계서)을 이치하여 통합하였다.

셋째, 610.9에 있던 '건축사'를 540.9로 이치하고, 그 아래 540.911에 '동양각국건축사'를 신설하여 지역구분을 사용할 수 있는 주기를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건축사는 물론 동양 각국의 건축사를 지역구분을 이용하여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542.1-.3에 있던 건축계획 관련 세목들이 540.1에 신설된 '건축계획' 아래로 이치되면서, 540.2 아래 있던 시공관련 세목들(542.1 건축활동, 542.12 구조물분석)이 이치되었다. 그리고 분류표 전542의 표목을 '건축실무'에서 '건축시공 및 적산'으로 변경하였다.

다섯째, 543에 건축구조와 관련된 항목들이 이치되면서, 표목이 '건축구조의 유형'에서 '구조역학 및 건축일반구조'로 변경되었다. 이와

함께 543.1에 '구조역학'을 신설하고 그 아래 세목으로 543.1에 있던 '기초공학(토질)'과 540.21에 있던 '구조물 분석'을 이치하여 구조역학 관련 주제들을 한 곳으로 집중시켰다.

여섯째, 친환경건축을 특정목적 건축의 일부로 보아 '친환경건축'을 544.1에 이치하면서 543.991에 있던 '특정목적의 건축'을 544.3-.9로 이치하였다. 그리고 친환경건축 아래에서 '지중건축'과 '생태건축'을 544.13 '공법' 아래에 주기로 포함시켜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546.1에 '건축환경'을 신설하고 그 아래 세목으로 '열환경', '빛환경', '음환경'을 신설하였으며, 그 아래 '건축음향'을 주기로 포함시켰다. 그에 따라 546의 표목을 '건축설비, 배관 및 파이프의 부설'에서 '건축환경, 설비, 배관 및 파이프의 부설'로 변경하였다.

여덟째, 619에 있던 '장식 및 의장'이 548 '건축마감'에 통합되면서 548의 표목이 '건축마감 및 인테리어'로 변경되었으며, 611-618에 있던 '각종 건물'은 549로 통합되었다.

이 연구는 KDC를 사용하는 도서관의 이용자들에게 종합학문의 성격을 가진 건축학의 이용을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 연구의 주된 관점이 이 부분에 집중되어 건축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다소 미흡하며, 이에 대한 추가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문헌분류 연구자들과 건축학 연구자의 공동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특정주제의 연구와 관련하여 이러한 공동연구를 통해 분류표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강성국. 2009. 『인재통계 표준화 방안 연구: 학과 표준분류체계』.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RR2009-27-2.
- [2] 건축개론편찬회 편. 1991. 『건축개론』. 서울: 지문당.
- [3] 김연례. 2009. KDC 제5관 건축공학분야 분류체계 개선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4): 401-425.
- [4] 대한건축사협회. 1999a. 건축실무 전문화에 관한 UIA 국제 표준안. 『대한건축사협회지』, 3: 90-95.
- [5] 대한건축사협회. 1999b. 건축실무 전문화에 관한 UIA 국제 표준안(Ⅱ) - 부록. 『대한건축사협회지』, 4: 58-69.
- [6] 두산백과. [cited 2013.4.15].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058701&mobile&categoryId=200000403>>.
- [7] 오동근, 배영환, 여지숙. 2011. DDC 제23관의 특성과 KDC 제5관 개정을 위한 합의.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3): 209-227.
- [8] 윤춘섭. 1999. 한국십진분류법(KDC) 제4판 중 540건축공학 부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大韓建築學會論文集』, 134: 109-116.
- [9] 이광로, 이경희, 김동훈, 주남철. 1994. 『建築學概論』. 서울: 文運堂.
- [10] 한국공학대학교육인증원. “건축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online]. [cited 2013.4.11]. <http://www.abeek.or.kr/htmls_kr/contents.jsp?menu_1=2&menu_m=16>.
- [11] 한국도서관협회. 2009.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12] 한국연구재단. 2013a. “학술연구분야분류표.” [cited 2013.4.7].
<http://www.nrf.re.kr/nrf_tot_cms/show.jsp?show_no=179&check_no=178&c_relation=0&c_relation2=0>.
- [13] 한국연구재단. 2013b.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cited 2013.4.10].
<http://www.nrf.re.kr/nrf_tot_cms/show.jsp?show_no=179&check_no=178&c_relation=0&c_relation2=0>.
- [14] 森清. 2005. 『日本十進分類法』. 新訂9版.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 [15] Dewey, Melvil. 2011.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3th ed. Dublin, Ohio: OCLC.
- [16] Oh, Dong-Geun. 2012. “Developing and Maintaining a National Classification System, Experience from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Knowledge Organization*, 39(2): 72-82.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ang, Seong-Guk. 2009. *A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of Departments Classification in Korea*. Seoul: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RR2009-27-2.
- [2] Geonchukhakgaeronpyeonchanhoe. 1991. *Geonchukhakgaeron*. Seoul: Jimundang.
- [3] Kim, Yeon-Rye. 2009. "The Methods for the Improvement of the KDC 5th Edition of Architecture Engineering Classification System."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4): 401-425.
- [4]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 1999a. "UIA Accord on Recommended International Standards of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Practice(I)."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 3: 90-95.
- [5]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 1999b. "UIA Accord on Recommended International Standards of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Practice(II)."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 4: 58-69.
- [6] Dusanbaekgw. [cited 2013.4.15].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058701&mobile&categoryId=200000403>>.
- [7] Oh, Dong-Geun, Bae, Yeong-Hwal, & Yeo, Ji-Suk. 2011. "The Characteristics of DDC 23 and Their Implications for KDC 5."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3): 209-227.
- [8] Yoon, Choon-Sup. 1999. "The Study on the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Architecture Engineering Section." *Architecture Institution of Korea Nonmunjip*, 134: 109-116.
- [9] Lee, Gwa-Ro, Lee, Gyeo-Hui, Kim, Dong-Hun, & Ju, Nam-Cheol. 1994. *Geonchukhakgaeron*. Seoul: Munundang.
- [10]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Program Criteria for Architectural and Similarly named Engineering Programs." [online]. [cited 2013.4.11].
 <http://www.abeek.or.kr/htmls_kr/contents.jsp?menu_1=2&menu_m=16>.
- [11]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9.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5th ed.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12]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013a. "Research Field Classification System." [cited 2013.4.10].

〈http://www.nrf.re.kr/nrf_tot_cms/show.jsp?show_no=179&check_no=178&c_relation=0&c_relation2=0〉.

- [13]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013b. "National S&T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 [cited 2013.4.10].

〈http://www.nrf.re.kr/nrf_tot_cms/show.jsp?show_no=179&check_no=178&c_relation=0&c_relation2=0〉.

- [14] Mori, Kiyoshi. 2005. *Nippon Decimal Classification*, newly revised 9th ed. Tokyo: Japan Library Association.